10.19114/CKS.23.3.12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로서 ‘대칭성’ 연구 2
– 타자의 자아화에 나타난 대칭구조를 중심으로

장철환*

1. 자아의 타자화와 타자의 자아화
2. 아내와 나, 절름발이의 대칭성
3. 아내의 외출과 귀환, 이중적 기만술
4. ‘남편된 자격’과 자기기만의 의미
5. 대칭의 반복과 시간의 기만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로서의 ‘대칭성’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절름발이’로 표현된 아내와의 관계는 이상 시의 대칭성을 이해하는 중심축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타자의 자아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거울’을 매개로 한 ‘자아의 타자화’와 대칭을 이룬다. 이때 ‘문(門)’은 이러한 대칭 구조의 중선(中線)이 되며, ‘문’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대칭성의 이해는 ‘아내’와의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만술’은 ‘타자의 자아화’의 기교적 핵심이다. 우선, ‘나’와 ‘아내’의 관계에 나타난 대칭성은 이중적이다. 창부와 아내로서의 분열은 아내 내부

* 연세대학교

의 데칼코마니적 대칭을 보여주고, 이는 아내와 나의 절름발이의 대칭을 이룬다. 이때 아내의 이중적 기만술은 이러한 대칭 구조의 균열을 야기한다. 다음, 아내의 기만술에 대한 나의 기만술은 양자의 대칭을 파열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기만을 통해 자기를 부정하려는 힘이 내재해 있다. 이 힘은 궁극적으로 '절망→기교'로의 운동 및 '기교→절망'으로의 운동과 동궤를 이룬다.

주제어: 대칭성, 주체, 타자, 부부, 절름발이, 문, 기만술, 절망, 기교.

1. 자아의 타자화와 타자의 자아화

이상 글쓰기의 핵심에는 '대칭성'이 있다. '대칭성'의 창안은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체 내부에서는 '거울 속 나'와 '거울 밖 나'의 대칭이 존재한다. '자아의 타자화'에 의한 대칭성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양가적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는 이상 시의 표층과 심층의 대칭이 완벽한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거울'에 의한 대칭은 좌우의 변형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대칭 내부의 잉여와 결여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때 '거울'의 존재는 시적 주체의 '절망과 기교'의 운동을 대변하는데, 이상의 글쓰기에서 부단히 재귀하는 '절망'은 타자화된 자아마저 구속하기 때문이다.[1)]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로서 '대칭성'은 주체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내' 및 '아버지'로 현시되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에서의 또 다른 대칭성이 존재한다. 이중 '절름발이'로 표현된 아내와의 관계[2)]는 이상 시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장철환,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로서 '대칭성' 연구 1」,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11.

2) 이상의 시에 나타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단편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상 연구서들을 부분적으로 참조할 수밖에 없다. 권영민 편저,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

의 대칭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지점이다. 여기에는 타자를 자아화하는 힘이 내재하는데, 이는 자아를 타자화하는 힘과 짝패를 이룬다. 즉, '아내'와의 관계에 내재하는 '타자의 자아화'는 '거울'을 매개로 한 '자아의 타자화'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門)'은 이러한 대칭 구조의 중선(中線)의 기능을 수행한다. '문'을 사이에 둔 안과 밖의 대칭성의 이해는 '아내'와의 미묘한 관계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아의 타자화'의 기교적 핵심에 '복화술'이 있다면, '타자의 자아화'의 기교적 핵심에는 '기만술'이 있다. 양자는 공히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를 이루는데, 특히 후자는 "그대 自身을 僞造하는 것도 할 만한 일이오. 그대의 作品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旣成品에 依하여 차라리 輕便하고 高邁하리다."[3]에 표현된 자기증식의 기만술로 표출되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시에 나타난 '아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타자의 자아화'가 "자신을 위조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이상의 시적 건축술의 일단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와 '아내'의 대칭성에 나타난 '기만술'의 원리가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4]에 나타난 '절망→기교' 및 '기교→절망' 대칭성의 환유적 운동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아내와 나, 절름발이의 대칭성

이상 시에서 '아내'는 주체 내부의 '대칭점'이 타자화되었을 때 나타나

사상사, 1987; 김인환 외,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 수류산방, 2013; 박현수, 「이상 시의 수사학적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이승훈, 『이상시연구』, 고려원, 1987; 황현산, 「'오감도' 평범하게 읽기」, 『창비』 101호, 창작과 비평, 1998. 가을;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1995;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 5』, 문학사상사, 2001. 이상 시 연구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오형엽, 「이상 시의 구조화 원리 고찰」, 『한국언어문화』 4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8.

3) 이상, 「날개」,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318쪽.

4) 이상,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 3』, 문학사상사, 1993, 360쪽.

는 주체의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 시 「紙碑」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 내키는커서다리는길고왼다리는아프고안해키는작어서다리는짧고
> 바른다리는아프니내바른다리와안해왼다리와성한다리끼리한사람
> 처럼걸어가면아아이夫婦는부축할수없는절름바리가되어버린다無
> 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끝끝내있다.[5]

「紙碑」에서 '나'와 '아내'는 대칭관계를 이룬다. '나'의 왼쪽 다리와 '아내'의 오른쪽 다리는 모두 아픈 다리이다.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나'와 '아내'는 좌우가 뒤바뀐 결여의 존재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좌우의 방향이 바뀐 '데칼코마니적 대칭성', 곧 '나'와 '아내' 사이의 절름발이로서의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부부가 하나로 묶였을 때, 서로의 결핍이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된다는 데에 있다. 곧 "부축할수없는 절름바리"가 되어 제대로 보행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나'와 '아내'의 부부로서의 결합 관계의 실제적 모습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상은 소설 「날개」에서도 '나'와 '아내'의 관계를 절름발이로 묘사한 바 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절름발이의 부부관계가 '숙명'이라는 필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부관계의 불구성을 '숙명'으로 간주하는 태도의 기저에는 이상이 지닌 특수한 세계관이 내재해 있다. 「紙碑」의 마지막 문장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부부관계의 불구성을 세계의 부정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에 주목해 보자. "無事한世上이病院"이라는 진술은 표층의 '무사'가 심층의 '병'을

5) 이상, 「紙碑」, 이승훈 편,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197쪽.
6) 이상, 「날개」,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343쪽.

은폐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끝끝내있다."는 '무병으로서의 병'이 '치료'되어야 할 것임을 고지한다. 이러한 진술들은 '무사'와 '무병'이라는 표층의 부부관계 이면에 심층의 '병'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나'와 '아내' 사이의 표층의 대칭이 아니라, '나-아내'라는 부부관계의 표층과 심층 사이의 대칭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대칭은 표층과 심층이 '정반대'된다는 점에서 전술한 '데칼코마니적 대칭성'과는 상이하다. 이는 「12月 12日」의 서두에 명시된 '반대꼴로서의 대칭점'의 창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7]

그렇다면, '나'와 '아내'의 대칭성의 심층에 존재하는 '병'은 무엇인가? 이는 "아내에게서 그악착한끄나풀을끌러던지고훨훨줄달음박질을쳐서달아나버리고싶었다."[8]에 표현된 "그악착한끄나풀"의 실제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과 동궤를 이룬다. 우선, '나'와 '아내'의 절름발이의 대칭성이 부부관계의 심층에서 발생하는 '병'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와 '아내'의 각각의 불구성은 부부관계 자체의 불구성에 내재한 심층의 '병'과 유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와 '아내'의 관계는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의 관계와 대칭적이라고. 주지하다시피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 사이의 대칭구조 속에는, '거울 속의 나'가 일종의 "외로된 事業"[9]에 골몰함으로써 야기되는 표층과 심층의 이반이 존재한다. "거울속의나는어디가서나를어떻게하려는陰謀를하는中일까"(「詩第十五號」)[10]라는 주체의 의심과 공포는 여기에서

---

7)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야. 네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것, 때로는 정반대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야」/ 이러한 결정적 해답이 오직 질풍신뢰적으로 나의 아무 청산도 주관도 없는 사랑을 일약 점령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 후에 나는 네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알고자 할 때에는 우선 네가 먼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첫번 해답의 대칭점을 구한다면 그것은 최후의 그것의 정확한 해답일 것이니」/ 하는 이러한 참혹한 비결까지 얻어놓았었다." 앞의 책, 22-23쪽.

8) 위의 책, 307쪽. 참고로 「지주회시」에서도 '아내'는 '거미'로 묘사되고 있다. "아내는꼭거미"(298쪽)가 그것이다.

9) 이상, 「거울」,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187쪽.

10) 위의 책, 19쪽.

비롯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나'의 불구성과는 달리 '아내'의 불구성은 확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왜 '아내'는 '나'처럼 "절름바리"인가? 이로부터 우리는 '나'의 불구성과 '아내'의 불구성을 등치시키려는 주체의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내재된 것이 자아의 타자화와 반대 방향의 운동인 타자를 자아화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심층의 '병'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나'와 '아내'의 절름발이의 대칭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시 「BOITEUX · BOITEUSE」를 보자.

긴것

짧은것

열十字

그러나CROSS에는기름이묻어있었다.

墜落

不得已한平行

物理的으로아팠었다
(以上平面幾何學)

-「BOITEUX · BOITEUSE」 부분

불어에서 'BOITEUX'는 절름발이란 뜻의 남성형 명사이고 'BOITEUSE'는 여성형 명사이다. 이 시가 절름발이 남성과 절름발이 여성의 결합에 대한 시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인용된 시의 전반부는 "平面幾何學"의 차원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해명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긴것"과 "짧

은것"은 일차적으로 "열十字"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차이를 의미하는데,[11] 「紙碑」와의 관련 속에서 본다면 부부의 '다리'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절름발이라는 불구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열十字"가 "긴것"과 "짧은것"의 결합으로서 부부관계의 정립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CROSS에는기름이묻어있었다."는 그러한 결합이 실패하여 최종적으로 "不得已한平行"으로 귀착됨을 분명이 보여준다. 여기서 "不得已"는 절름발이로서의 부부관계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는 자각이 내재해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전반부는 "二十二"라는 이상의 나이에 대한 단순한 언어유희라기보다는, 정상적 부부관계의 실패와 불가능성에 대한 평면기하학적 도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2] 혹은 "二十二"를 하나의 절름발이 주체('二')와 또 하나의 절름발이 주체('二')의 결합('+')으로 해석하는 한에서 절름발이 부부관계의 "平面幾何學"적 도해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不得已한平行"은 나와 아내의 대칭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의 시와 소설에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부부관계의 대칭성이 공간의 대칭성으로 전유되는 지점이다. 특히 '방(房)'이 지닌 상징성은 의미심장하다. '방'은 나와 아내의 "不得已한平行" 구조를 시연하는 연극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방'은 나와 아내를 절름발이가 되게 하는, 곧 "한사람처럼걸어가"게 만드는 '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도 「날개」의 '방'의 분할은 이를 잘 보여주는데, "이 방이 가운데 장지로 말미암아

11) BOITEUX와 BOITEUSE라는 단어의 길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 무엇이든, "긴것"과 "짧은것"이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뜻한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12)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전반부는 二十二라는 기호의 평면기하학을 일종의 언어유희(pun)로 노래하며, 후반부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영원히 불가능함을 노래한다." 앞의 책, 112-113쪽. 이러한 설명은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간극을 심화시킴으로써 양자의 관계에 대한 혼돈을 초래한다. 이러한 모순은 시의 전반부를 절름발이로서의 부부관계의 표현으로 이해할 때 해소될 수 있다. 이는 시의 후반부에 표현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의 불가능성'과 부합하며, 특히 후반부의 "沈默"과 "나의步調"와의 관련성을 예시할 수 있게 된다.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그것이 내 운명의 상징이었던 것을 누가 알랴?"[13]라는 구절은 "不得已한平行" 관계의 구체적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가운데 장지"를 기준으로 분할된 방은 아내와 평행할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不得已한平行"의 대칭성은 '문'에 의한 안과 밖의 분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門을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에生活이모자라는까닭이다.밤이사나운꾸지람으로나를졸른다.나는우리집내門牌앞에서여간성가신게아니다.나는밤속에들어서서제웅처럼자꾸만滅해간다.食口야封한窓戶어데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收入되어들어가야하지않나.지붕에서리가내리고뾰족한데는鍼처럼月光이묻었다.우리집이앓나보다.그러고누가힘에겨운도장을찍나보다.壽命을헐어서典當잡히나보다.나는그냥門고리에쇠사슬늘어지듯매어달렸다.門을열고안열리는門을열려고.[14]

(나)
너는누구냐그러나門밖에와서門을두다리며門을열라고외치니나를찾는一心이아니고또내가너를도무지모른다고한들나는차마그대로내어버려둘수는없어서門을열어주려하나門은안으로만고리가걸린것이아니라밖으로도너는모르게잠겨있으니안에서만열어주면무엇을하느냐[15]

(가)와 (나)는 '문(門)'을 사이에 두고 문 안과 밖의 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가)가 '문' 밖에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면, (나)는 '문' 안에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가)와 (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대칭구조

13) 이상, 「날개」, 앞의 책, 321쪽.
14) 이상, 「家庭」,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59쪽.
15) 이상, 「正式 Ⅳ」, 위의 책, 193쪽.

를 이룬다. (가)와 (나)에 명시적으로 아내가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의 "食口"와 (나)의 "너"는 가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존재로서 아내를 지시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가)와 (나)의 '안 열리는 문'은 나와 아내의 불구의 대칭성, 곧 "不得已한平行"과 "절름바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나)의 "門은안으로만고리가걸린것이아니라밖으로도너는모르게잠겨있으니"의 역설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는 문의 열림과 닫힘이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주체의 선택에 의존한다는 의미와 함께, 문의 잠김과 풀림이 주체의 인식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내재해 있다. 따라서 나와 아내의 "不得已한平行"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 '대칭점'의 자각을 통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사실상 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와 아내는 집과 방의 전유를 통해 이미 상대의 틈입을 봉쇄하였기 때문이다. (가)의 "食口야 封한窓戶어데라도한구석터놓아다고내가收入되어들어가야하지않나"는 이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안해를즐겁게할條件들이 闖入하지못하도록나는 窓戶를닫고밤낮으로꿈자리가사나와서가위를눌린다"(「追求」)와 쌍을 이룬다.

3. 아내의 외출과 귀환, 이중적 기만술

아내가 나와 같은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면, 아내의 대칭성 또한 이중적이다. 하나는 아내 내부의 대칭성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와 나 사이의 대칭성이 그것이다. 여기서 전자와 후자는 프랙털(fractal)과 같은 구조로 반복된다. 이는 아내가 나처럼 분열된 자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곧 '아내'와 '창부'로서의 분열. 아내의 분열은 나의 분열과 '닮은꼴'이다. 다시 말해 아내는 집안에서의 나의 관계와 집밖에서의 내객과의 관계로 분열된 자이다. 절름발이인 나와 아내가 부부로서도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는 일차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명의 다른 시 「紙碑 一」에는 나와 아내의 이런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시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기술하는 후기 소설, 「지주회시」(1936.6), 「날개」(1936.9), 「봉별기」(1936.12)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어디갔는지모르는 안해
>
> 紙碑 一
>
> 안해는 아침이면 外出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를 속이려 가는 것이다 順序야 바뀌어도 하루에한男子以上은 待遇하지않는다고 안해는말한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돌아오지않으려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 나면 化粧은있고 人相은없는얼굴로 안해는 形容처럼簡單히 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두率直히 이야기한다 나는 안해의日記에 萬一 안해가나를 속이려들었을때 함직한 速記를 男便된 資格밖에서 敏捷하게 代書한다.[16]

먼저, 「紙碑」의 머리말에 놓인 "어디갔는지모르는 안해"의 문제부터 거론할 필요가 있다. 「紙碑 一」이 "안해는 아침이면 外出한다"로 시작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出奔한 안해의 歸家"[17]와 "女人이出奔한境遇"[18] 등에서도 아내의 외출은 강박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상에게 아내의 외출, 곧 아내의 부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주지하디시피 그것은 '금홍'과의 생활의 굴절과 파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의 외출이 초래할 사태에 대한 시적 주체의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이야말로 정말 돌아오지않으려나보다하고 내가 完全히 絶望하고 나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정상적 부부관계에 대한 희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기이한 행동(대서 행위)에 암시된 욕망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장은 정

16) 이상, 「紙碑一」, 앞의 책, 198쪽.
17) 이상, 「無題」, 위의 책, 213쪽.
18) 이상, 「거리」, 위의 책, 220쪽.

상적 부부관계에 대한 바람이 아니라, 왜곡되고 기만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인정을 표현한다. 따라서 핵심은 아내의 외출이 초래하는 두려움을 정상적 부부관계에 대한 염원과는 다른 방식의 욕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다. 이것이 부부관계에 내재한 심층의 '병'을 규명하는 관건이 되며, 이를 위해 아내의 외출이 절름발이의 대칭성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내와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다음 두 편의 소설을 참조하자.

(가)
아내에게 직업이 있었던가? 나는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만일 아내에게 직업이 없었다면, 같이 직업이 없는 나처럼 외출할 필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 아내는 외출한다. (중략) 나는 우선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에 착수하였으나 좁은 시야와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것을 알아 내이기 힘이 든다. 나는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19]

(나)
錦紅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內外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過去래야 내 過去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錦紅이 過去를 묻지 않기로 한 約束이나 다름없다. (중략) 錦紅이에게는 예전 生活에 對한 鄕愁가 왔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자니까 錦紅이에게 對하여 심심하다. 그래서 錦紅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 —
즉 錦紅이에 狹착한 生活이 錦紅이의 鄕愁를 向하여 發展하고 飛躍하기 시작하였다는 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20]

19) 이상, 「날개」,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325-326쪽.
20) 이상, 「봉별기」, 위의 책, 350-351쪽.

(가)와 (나)는 동일한 사태에 대한 진술이지만, 아내의 외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매우 상이하다. 전자가 아내의 외출을 그녀의 직업과 연결시켜 알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것과는 달리, 후자는 그것이 '나의 심심함'에서 비롯하는 "예전 生活에 對한 鄕愁"로 명시하고 있다. 전자의 "끝끝내 내 아내의 직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말려나 보다."와 "錦紅이에 狹착한 生活이 錦紅이의 鄕愁를 向하여 發展하고 飛躍하기 시작하였다"와의 차이는 크다. 후자는 전자에서 텅 빈 기표로 존재하는 '아내-금홍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가)와 (나)의 차이는 아내의 가출의 이유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은 아내의 외출이 아니라, 거기에 내재한 아내의 욕망의 실체이다. '아내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이는 두려움이 결혼생활의 파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음에서 오는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紙碑 一」에서 아내의 귀환 장면, "化粧은있고 人相은없는얼굴로 안해는 形容처럼簡單히 돌아온다"는 이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21] 여기서 시적 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내의 귀환의 의미이다. 아내의 귀환은 나의 완전한 절망 이후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아내의 귀환은 결혼생활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데, 아내의 귀환은 절름발이로서의 부부생활의 지속을 뜻하기 때문이다. 시적 주체의 곤궁은 아내의 귀환에 담긴 욕망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紙碑 一」의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두率直히 이야기한다"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내의 귀환의 이유가 남김없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솔직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있다는 것에 가깝다. "萬一 안해가나를 속이려들었을때 함직한 速記"에 표현된 것처럼, 나에게 아내의 솔직한 대답은 일종의 '기만행위'로 인식되는 것이다. 아내의 솔직한 이야기가 '기만'으로 인식될 수밖

21) 「無題」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너는 어찌하여 네 素行을 地圖에 없는 地理에 두고 花瓣 떨어진 줄거리 모양으로 香料와 暗號만을 携帶하고 돌아왔음이냐." 이상, 「無題」,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213쪽.

에 없는 메커니즘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내의 불가해한 욕망 앞에서 주체가 처한 난국은 아내를 기만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녀의 기만술을 간파하려는 태도로 이어진다. 이는 「紙碑 一」에 나타난 아내의 기만술이 이중적임을 보여준다. 표층에 드러난 기만술은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를 속이려 가는 것이다."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를 '손님'으로 본다면, 이는 창부로서의 기만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내는 집 '밖'에서 '그'의 아내로서의 자기의 처지와 신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때 남편으로서의 '그'는 사라진다. 「紙碑 一」의 이면에 숨겨진 두 번째 기만술은 '손님'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향한다. 아내는 집 '안'에서 '손님'의 창부로서의 자기의 욕망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얼핏 "나는 물어보면 안해는 모두率直히 이야기한다"와 모순되는 듯하다. 그러나 전술했듯, 아내의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에 관한 일들을 '그'에게 솔직히 말하는 행위는 기만의 행위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내의 솔직함의 의도는 자기가 속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데 있는 것이다.[22] 「봉별기」의 일절은 그 내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錦紅이로서 錦紅이답지 않은 일일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중략) 錦紅이는 나를 내 懶怠한 生活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姦淫하였다고 나는 好意로 解釋하고 싶다. 그러나 世上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禮儀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은 錦紅이로서 말하자면 千慮의 一失 아닐 수 없다.[23]

---

22) 아내의 솔직한 이야기는 프로이트가 말한 '나는 크라카우로 간다'는 농담과 유사하다. "이런 거짓말쟁이가 있나! 넌 크라카우에 간다고 말하면서 네가 렘베르트에 간다고 내가 믿기를 원하겠지. 하지만 난 네가 실제로는 크라카우에 간다는 걸 안다구.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프로이트,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열린책들, 2004, 148쪽.

23) 이상, 「봉별기」,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351쪽.

‘금홍’의 태도 변화는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錦紅이답지 않은 일”인 것은 기존의 ‘금홍’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추정케 한다. 즉 ‘금홍’은 비록 그것이 ‘손님’과의 관계일지라도 자기의 욕망을 은폐하지 않았던 것이다. ‘금홍’의 이런 변화를 “나를 내 懶怠한 生活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姦淫하였다”고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주체의 태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금홍’의 ‘간음’ 자체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가 “世上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禮儀를 지키는 체해 본 것”이라는 사실이다. ‘금홍’과의 관계에서 치명적인 것은 그녀의 ‘간음’이 아니라, “아내다운 禮儀”를 지킴으로써 나를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아내다운 禮儀”는 ‘금홍’의 기만을 반증하는 셈이다.

“아내다운 禮儀”의 기만술은 아내의 분열을 전제한다. 즉 그녀는 ‘창부’와 ‘아내’로 분열된 자이다. 이러한 분열은 ‘안’과 ‘밖’의 대립으로 현상하는데, 밖의 공간에서는 ‘창부-손님’의 관계로, 안의 공간에서의 ‘아내-남편’의 관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에 대한 기만은 이러한 분리에 기초하지만, ‘나’에 대한 기만은 이러한 분리의 균열을 초래한다. 그 이유는 전자에서는 ‘아내-남편’의 관계가 봉쇄되어 있지만, 후자에서는 ‘창부-손님’의 관계가 틈입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내다운 禮儀”의 기만술은 ‘남편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손님으로서의 나’의 자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아내’의 기만술은 ‘나’를 ‘남편/손님’으로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 절름발이로서의 부부관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 그가어쩌다가그의아내와부부가되어버렸나. 아내가그를따라온것은사실이지만 왜 따라왔나? 아니다. 와서왜가지않았나—그것은분명하다. 왜가지않았나 이것이분명하였을때—그들이부부노릇을한지一년반쯤된때—아내는갔다. 그는아내가왜갔나를알수없었다. 그까

> 닭에도저히아내를찾을길이없었다. 그런데아내는왔다. 그는왜왔는지알았다. 지금그는아내가왜안가는지를알고 있다. 이것은분명히왜갔는지모르게아내가가버릴징조에틀림없다. 즉경험에의하면 그렇다.[24]

인용문에 나타난 아내의 출분과 귀환의 반복은 부부관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가어쩌다가그의아내와부부가되어버렸나”는 이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어쩌다가”는 아내의 출분과 귀환을 포함한 부부 관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회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아내의 출분과 귀환의 의미를 확증해 나가는 과정이다. 복잡한 듯 보이는 인용문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내’의 행위의 양상>		<‘그’의 앎의 양상>
① 아내가 그를 따라옴		㉠ 질문, 그러나 ㉡으로 대체됨
② 떠나지 않음	→	㉡ 분명함, 알고 있음
③ 아내가 떠남		㉢ 모름
④ 아내가 돌아옴		㉣ 알고 있음
⑤ 아내가 떠나지 않음	→	㉤ 알고 있음
⑥ 아내가 떠남		㉥ 예견됨

<‘아내’의 행위의 양상>에서 ①~③과 ④~⑥은 대칭 구조를 띤다. ①~③에 나타난 아내의 출분과 귀환은 반복적인 사건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④~⑥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가)의 결과인 <‘그’의 앎의 양상>에서 ㉠~㉢과 ㉣~㉥은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에서 아내의 첫 번째 출분은 미지의 사건이었지만, ㉥에서는 그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①~③의 아내의 행위가 ㉠~㉢에서는 그

24) 이상, 「지주회시」, 앞의 책, 299쪽.

의 앎의 수준을 초과하는 일이었지만, ④~⑥의 '아내'의 행위는 ㉣~㉤에서 그의 앎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물론 후자는 반복되는 경험에 의한 예상의 차원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의 상태가 "아내가가버릴징조에틀림없다"와 같은 확실성으로 급변하고 있다. 무엇이 이런 비약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가?[25]

「지주회시」에서 아내의 귀환을 "왜갔는지모르게아내가가버릴징조"로 확증하는 '그'의 태도는 아내의 욕망의 불가해성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아내의 욕망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으키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인 것이다. '거미'인 아내 앞에서의 다음과 같은 두려움은 이를 예증한다. "담배를한대피워물고 — 참 — 아내야. 대체내가무엇인줄알고죽지못하게이렇게먹여살리느냐 — 죽는것 — 사는것 — 그는천하다 그의존재는너무나우스꽝스럽다 스스로지나치게비웃는다."[26] 그러니까 "죽는것 — 사는것"은 '그'에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거미-아내'의 욕망의 정체, 곧 '나'를 살려두는 이유이다.("대체내가무엇인줄알고죽지못하게이렇게먹여살리느냐") 아내의 불가해한 욕망은 '그'에게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한다. 그 불안은 생사의 기로에서 자기의 운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겪는 공포에 버금간다. 따라서 아내의 욕망의 성급한 확정은 이러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탈주하려는 주체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아내다운 禮儀"의 기만술이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탈주의 시도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나'를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의 무화(無化)를 초래한다.

---

25) 이의 해명은 「紙碑 一」의 마지막 구절, 즉 '나의 대서(代書)'의 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紙碑 一」의 마지막 문장은 ⑤와 ⑥ 그리고 ㉢과 ㉤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26) 이상, 「지주회시」, 앞의 책, 308쪽.

4. '남편된 자격'과 자기기만의 의미

이로부터 아내의 출분과 귀환, 그리고 아내의 기만술의 함의를 알고 있는 자의 선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아내의 기만술을 간파하고 있는 자가 굳이 아내의 일기장에 "안해가나를 속이려들었을때 함직한速記"를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흥미롭게도 아내의 '기만술'에 대한 주체의 대응은 또 다른 기만술의 창안이다. 「紙碑 一」의 '대서행위'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먼저 '대서행위'가 아내의 기만술을 폭로하느냐 은폐하느냐에 대한 것부터 판단해 보자. 전자의 경우라면, '대서행위'는 네가 나를 속이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대서행위'는 아내의 기만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대서행위'가 "男便된 資格밖"에서 벌어진다는 사실과 상충된다. 왜냐하면 아내의 기만에 대한 폭로 행위는 전형적인 '남편의 자격' 안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대서행위' 자체가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폭로와 은폐와는 다른 차원으로 '대서행위'를 사고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대서행위'는 아내가 취해야 할 기만술에 대한 조언이 될 수 있다. '대서행위'는 아내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여 기만술을 강화하는 유인책인 셈이다. 여기에는 아내의 기존의 기만의 방식의 실패와 기만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27] 이 경우 '대서행위'의 목적은 아내가 기만술에 대한 힐난이 아니라, 완벽한 기만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시 「아침」을 보자.

> 안해駱駝를닮아서편지를삼킨채로죽어가나보다. 벌써나는그것을읽어
> 버리고있다. 안해는그것을아알지못하는것인가. 午前十時電燈을끄

27) 아내에게 보다 강화된 기만술을 요구하고 있는 「無題」의 다음 구절은 매우 흥미롭다. "그런 이곳에 出口와 入口가 늘 開放된 네 私私로운 休憩室이 있으니 내가 奔忙中에라도 네 거짓말을 적은 片紙를 「데스크」 위에 놓아라." 이상, 「無題」,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213쪽.

려고한다. 안해가挽留한다. 꿈이浮上되어있는것이다. 석달동안안해는回答을쓰고자하여尙今써놓지는못하고있다. 한장얇은접시를닮아안해의表情은蒼白하게瘦瘠하여있다. 나는外出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나에게付託하면된다. 네愛人을불러줌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28]

이 시를 통해 우리는 "男便된 資格밖"에서의 '대서행위'의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나'는 아내의 '편지'를 읽은 자, 곧 아내의 고민과 갈등을 알고 있는 자이다. "안해는그것을아알지못하는것인가"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의 고민을 은폐하려는 자이고, 나는 아내의 고민과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이다.[29] 아내가 '回答'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장얇은접시"로 비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男便된 資格밖"의 행위가 출현한다. '나'의 외출(아내의 외출이 아니다)과 "네愛人을불러줌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가 그것이다. 즉 아내의 밀회를 위한 전언자의 역할이 "男便된 資格밖"의 '나'의 선택인 것이다.

남편이면서 "男便된 資格밖"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일단 '남편된 자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무력한 남편의 모습을 상정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이든 성적 차원이든, 혹은 양자 모두이든 '나'는 '남편의 자격'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자이다. 시 「家庭」의 일절, "門을암만잡아다녀도안열리는것은안에生活이모자라는까닭이다."[30]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男便된 資格밖"의 행위는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가 된다. 아내의 애인을 불러주는 행위가 '나'에게 지닌 의의가 여기에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

28) 이상, 「아침」, 위의 책, 232쪽.
29) 이러한 상황은 포우의 「잃어버린 편지」에 대한 라깡의 해석과 유사하다.
30) 위의 책, 59쪽.

면, 무능한 '남편의 자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男便된 資格밖"에서 아내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付託하면된다"에 명시된 '아내의 부탁'이다. 이는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솔직히 인정하는 한에서만 욕망의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男便된 資格밖"의 행위의 궁극적 의도는 아내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고해성사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愛人을불러줌세"라는 호의는 이중적이다. 그것은 "男便된 資格밖"에서 무능한 남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자, '남편의 자격' 안에서 아내의 기만을 폭로하는 유능한 남편의 일이기도 한 것이다. '네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욕망을 고해하라.' 이것이 나의 기만술의 요체이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 이후에 욕망을 실현하라는 것, 먼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지으라는 것이다. 아내의 기만술에 대한 나의 기만술은 아내의 기만술 앞에서 남편으로서의 존재가 무화되는 것에 대한 반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서행위'는 아내가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의 욕망을 실체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付託하면된다. 네愛人을불러줌세아드레스도알고있는데"와 같은 말이 아내의 일기장에 대필된 것이다. 이것은 내용적 차원에서는 "男便된 資格밖"에서의 아내의 욕망의 대필이지만, 수행적 차원에서는 '남편의 자격' 안에서의 주체의 욕망의 기술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서행위'를 아직 발화되지 않은 아내의 욕망을 언표함으로써 그것을 실체화하려는 주체의 욕망을 읽을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타자를 자아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의 기만술을 폭로하여 힐난하고자 하는 행위 속에는 이러한 타자를 자아화하려는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의 욕망을 실체화하는 '대서행위'에는 타자를 자아화하려는 운동이 분명 존재한다. 이는 아내를 자기와 동일시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시 「普通紀念」의 일절, "나는 오래 계집을 잊었었다 내가 나를 버렸던

까닭이었다."[31]는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나와 아내 사이에 벌어지는 이러한 기만술의 교차가 궁극적으로 '자기기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숭이는그를흉내내이고 그는원숭이를흉내내이고 흉내가흉내를 흉내내이는것을 흉내내이는것을 흉내내이는것을 흉내내이는것을흉내내인다."[32]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인용문은 "사실 사람이 원숭이 흉내를 내이고 지내는 바"[33]나 "猿猴를흉내내이고있는마드무아젤"[34]과 같은 구절에 표현된 것처럼 원숭이 흉내를 내는 인간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이러한 흉내의 전도는, '원숭이의 흉내'와 '인간의 흉내' 사이의 차이의 소거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와 아내의 기만술의 교차를 이해할 수 있다.

> 鸚鵡 ※ 二匹
> 二匹
> ※ 鸚鵡는哺乳類에屬하느리라.
> 내가 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勿論나는希望할것이니라
> 鸚鵡 二匹
>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그러타」
> 나는거기서鸚鵡가怒한것을보앗느니라. 나는붓그러워서얼굴이붉어젓섯겟느니라.
> 鸚鵡 二匹
> 二匹
> 勿論나는追放당하얏느니라. 追放당할것까지도업시自退하얏느리라. 나의體軀는中軸을喪尖하고또 相當히蹌踉하여그랫든지나는

31) 앞의 책 189쪽,
32) 이상, 「지도의 암실」,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168쪽.
33) 이상, 「종생기」, 위의 책, 376쪽.
34) 이상, 「AU MAGASIN DE NOUVEAUTES」,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167쪽.

微微하게涕泣하얏느리라.
「저기가저기지」「나」「나의ㅡ아ㅡ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너」「너로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
나는함뿍져져서그래서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 勿論그것을아아는사람或은보는사람은업섯지만그러나果然그럴는지그것조차그럴는지[35]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다. 1~4행, 5~7행, 8~15행이 그것이다. 1~4행은 프롤로그이고, 5~7행은 최초의 대화와 사건의 기술이고, 8~15행은 대화와 사건의 확장이다. 분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부분은 '등장인물 소개→대화→사건의 기술'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희곡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6] 이러한 구조적 상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먼저 첫 부분에서의 난점은 "※"의 해석이다. 3행의 "※ 鸚鵡는哺乳類에屬하느리라."를 참조컨대, "※"는 포유류의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37] 따라서 이 시에 등장하는 앵무는 포유류의 앵무(※ 二匹)와 조류의 앵무(二匹)로 구분할 수 있다. 1행의 "※ 二匹"는 포유류로서의 앵무를 지시하고, 2행의 "二匹"은 조류로서의 앵무를 지시하는 것이다. 후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앵무이지만, 전자는 이상 부부의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익히 알 수 없는 앵무이다. 이로부터 "내가 二匹을아아는것은내가二匹을아알지못하는것이니라"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즉, 알고

35) 이상, 「詩第六號」, 앞의 책, 30쪽.
36) 이상 시가 지닌 연극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신형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2호, 한국현대문학회, 2002.
37) "시인은 ※를 이용하여 그것들이 포유류에 속한다고 주를 붙인다." 황현산, 「'오감도' 평범하게 읽기」, 『창비』 101호, 창작과비평, 1998. 가을, 340쪽.

있는 것이 조류로서의 앵무이든 포유류로서의 앵무이든, 한쪽을 아는 것은 다른 한쪽을 모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쪽을 통해 다른 한쪽을 알 수 있다는 "希望"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勿論나는希望할것이니라")

두 번째 부분에서의 해석상의 난점은 대화의 주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그러타」"의 발언의 주체는 누구인가? 먼저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는 조류 앵무의 발언으로 봐야 한다. 소설 「지도의 암실」은 여기서의 대화가 앵무와의 대화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38] 이와 함께 "※"가 없다는 점, 그리고 "夫人"이라는 말이 남의 아내를 지시하는 용어라는 점에서도 이 말은 앵무의 발언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러타」"는 앵무의 질문에 대한 이상 자신의 대답이다. 이러한 긍정에 대한 앵무의 분노는 "그러타"라는 대답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추측컨대 "小姐"는 "紳士李箱의夫人"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앵무의 분노가 이상에게 부끄러움을 야기하게 된다.

세 번째 부분은 앞부분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鸚鵡　二匹/二匹"에서 보듯 포유류를 지시하는 "※"가 사라졌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첫 번째 부분에서 제기된 조류/포유류의 구분이 사라졌음을 암시한다. 이로부터 "나는追放당하얏느니라."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追放"은 포유류의 세계로부터의 추방("※"의 상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문맥상 앵무와의 대화에서 느낀 부끄러움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追放당할것까지도업시自退하얏느리라"는 이러한 진화상의 퇴화가 스스로 선택한 일임을 뜻한다. 여기서 "나의體軀는中軸을喪失하고"는 포유류에서 조류로의 퇴화 과정을 서술하고, "相當히蹌踉하여"는 중심을 상실한 상태

38) "JARDIN ZOOLOGIQUE/ CETTE DAME EST-ELLE LA FEMME DE/ MONSIEUR LICHAN?/ 앵무새당신은 이렇게지껄이면 좋을것을그때에 나는/ OUI!/ 라고 그러면 좋지안겠음니까 그렇게그는생각한다." 이상, 「지도의 암실」,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168쪽.

에서의 방향 상실을 묘사하며, "나는微微하게涕泣하얏느리라."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주체의 슬픔과 자괴를 표현한다.

세 번째 부분의 단발성 대화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 「너」「너로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라는 대화의 상황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승훈은 이를 "「나」가 하는 내적 독백"[39]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일한 주체의 내적 독백이라면, 대화의 진행을 표시하는 '낫표'의 분절이 있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의 구절은 "「이小姐는紳士李箱의夫人이냐」「그러타」"처럼 앵무와 이상의 대화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대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기가저기지」「나」「나의—아—너와나」/ 「나」"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확정하기 어렵다.[40] 이어지는 대화 "sCANDAL이라는것은무엇이냐. 「너」「너로구나」/ 「너지」「너다」「아니다 너로구나」"는 '추문'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앵무와 이상의 대화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너」"라는 말에 대한 "「너로구나」"의 반박, 이는 "「너지」"에 대한 "「너다」"의 반박과 "「아니다 너로구나」"의 재반박으로 반복된다. 흥미로운 것은 직전의 대화가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지금의 대화는 '너'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나의—아—너와나"를 인칭대명사 '나'는 발화자의 위치에 따라 '너' 혹은 '나'로 동시에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추문'의 주체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한 것이 된다.

여기서 파생하는 마지막 문제는 "勿論그것을아아는사람或은보는사람은업섯지만"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앵무와 이상 자신 이외에 다른 사

39) 이승훈, 앞의 책, 31쪽.

40) 이 부분의 대화는 지시대명사 "저기"와 인칭대명사 "나"가 지시하는 대상 혹은 사람을 확정짓는 문제와 관련 있다. 즉 대명사의 지시대상에 대한 언급이다. "저기가저기지"는 "이小姐"의 "이"와 관련하여, "나"는 "나의—아—너와나"와 관련하여, 대명사는 주체의 위치와 관점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명사의 상대성에 대한 이러한 대화가 출현하게 된 이유는, 문맥 상으로 "나의體軀는中軸을喪失하고"와 관련 있다. 즉 주체의 중심의 상실이 '여기-저기', '나-너'의 확고한 경계를 해체한 것이다.

람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小姐"에서 "이"라는 지시대명사의 실체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이小姐"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小姐"를 이중적 존재, 곧 조류 앵무이자 동시에 포유류 앵무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小姐"는 질문하는 앵무의 입장에서는 조류 앵무이고, 대답하는 이상의 입장에서는 포유류 앵무인 것이다. 이는 "이小姐"가 분열된 존재임을 암시한다. 만약 우리가 "이小姐"를 「紙碑 一」의 '아내'와 등치시킨다면, 위의 시는 전체적으로 나와 아내, 아내와 손님의 관계의 비유로 읽힐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앵무와의 대화는 이중적으로 관계하는 아내의 실체에 대한 논쟁이고, "獸類처럼逃亡하얏느니라"는 그러한 논쟁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패배하였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추방이든 자퇴이든, "도망"은 아내와의 관계의 파탄을 고지한다.

이는 「날개」에서 '아스피린과 아달린'을 둘러싼 사건에서 다시 한 번 출현한다. "아내는 한달 동안 아달린을 아스피린으로 속이고 내게 먹였다. 그것은 아내 방에서 이 아달린 갑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였다."[41]와 "그러나 또 생각하여 보면 내가 한달을 두고 먹어 온 것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내가 무슨 근심 되는 일이 있어서 밤되면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정작 아내가 아달린을 사용한 것이나 아닌지"[42]의 차이를 비교해 보라. 전자의 확실성에 비해 후자의 추측성 발언은, 아내가 준 것이 '아달린'임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자료이다. 후자에 나타난 아내의 욕망의 실체에 대한 부정은 역설적 효과를 산출한다. 왜냐하면 아내가 나에게 아달린을 주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달린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작동하는 원리는 부인(disavowal)[43]이기 때문이다. 탈주는 이러한 진퇴유곡의 상황에서 주체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41) 위의 책, 340쪽.
42) 위의 책, 341쪽.
4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조할 것. 브루스 핑크, 『라깡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꽥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깅가밍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나.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시피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돈 몇원 몇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나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44]

'내'가 느끼는 '억울함'은 복합적이다. 아내의 오해에 대한 변명과 아내의 행위(아달린)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다. 「날개」에서 가장 문제적 행동 가운데 하나가 이때 발생한다. 즉 "돈 몇원 몇십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나는 그냥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 버렸다."가 그것이다. 문지방에 돈은 놓고 온 행위의 이유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는 기존의 아내와의 관계의 파탄을 고지하는 상징적 행위임에는 틀림없다. 내객에서 아내로, 다시 아내에서 나에게로 이어지는 돈의 흐름을 고려할 때, 돈의 반환은 "그악착한끄나풀"로부터의 탈주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대, 저금통을 변소에 버리는 행위가 돈의 용도에 대한 '나'의 무지를 대변하고,[45] 아내의 손에 돈을 주고 아내의 방에서 같이 자는 행위가 돈에 대한 최초의 용도를 대변한다면,[46] 돈의 반환은 필연적으로 아내의 욕망으로부터의 탈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내의 행위의 변화와 돈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의

---

44) 위의 책, 342쪽.

45) "나는 벌써 돈을 쓰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다." 위의 책, 329쪽.

46) "나는 아내 이불 위에 엎드러지면서 바지 포켓 속에서 그 돈 五원을 꺼내 아내 손에 쥐어준 것을 간신히 기억할 뿐이다."(위의 책, 332쪽) "그 돈 五원을 아내 손에 쥐어주고 넘어졌을 때에 느낄 수 있었던 쾌감을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객들이 내 아내에게 돈 놓고 가는 심리며 내 아내가 내게 돈 놓고 가는 심리의 비밀을 나는 알아내인 것 같아서 여간 즐거운 것이 아니다."(위의 책, 333쪽)

와중에 ‘아달린과 아스피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돈은 아내와 내객 사이의 욕망의 교환을 가능케 하는 기표이다. 아내는 그 기표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작동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제는 “男便된 자격”에 대한 ‘나’의 각성이, 아내와 내객의 관계가 ‘나’와 아내의 관계에 틈입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다. 「지주회시」에서 보았듯 “죽는것 ― 사는것”은 대수가 아니다. 문제는 아내가 ‘나’를 기만하는 것 자체에 있다. ‘아달린과 아스피린’ 사건이 치명적인 것은 아내의 기만술이 죽음에의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과 돈의 반환은, 일차적으로 내객과 아내의 돈을 되돌려 주는 행위이고, 아내와 내객 사이에 작동했던 욕망의 기표로서의 돈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는 돈의 기능의 무지에서 비롯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용도를 알게 된 자가 바로 그러한 용도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의지의 행위로 읽힐 수 있다. ‘나’는 결코 아내의 내객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와 ‘나’는 숙명적 절름발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탈주는 절름발이로서의 부부관계의 최종 결말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다 알다시피, 「날개」에서 탈주는 죽음(자살)에의 소망으로 귀착된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한번만 더 날아 보잤꾸나.”에 나타난 비상에의 소망은 죽음에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날개가 돋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새가 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이상의 ‘동물 이미지’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 그러나 상이 취하는 가축의 태도는 존재론적인 깊은 고뇌에서 나의 의식과 타인의 의식, 그 팽팽하게 긴장된 시선의 싸움에서 그 싸움을 중지하고 돌처럼 굳어 있는 상태로 되고 싶다는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다. 자기 자신의 동물화된 몸짓 안쪽에는 음험한 천재 의식, 우월한 의식이 숨어 있는 것이다.[47]

47) 오생근, 「동물의 이미지를 통한 이상의 상상적 세계」, 『이상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오생근의 갈파는 의미심장하다. 스스로를 동물로 비유하는 이상의 태도 속에 "마조히스트의 그것"[48]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동물의 비유'가 일종의 기만술임을 분명히 하기 때문이다. 오생근의 갈파처럼, 이상의 이러한 기만술의 중심에는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일부러 자기를 속임으로 하여 本然의 자기를 얼른 보기에 高貴하게 꾸미자는"[49] 의식이 내재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고귀하게 꾸미자는 것"은 "음험한 천재 의식, 우월한 의식"과 동궤를 이루는데, 일종의 '보들레르적 댄디즘'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 곧 이러한 기만술의 '대칭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물화된 몸짓"에 내재한 천재의식의 갈망은 그 역의 운동 또한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기만'은 천재성의 우회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기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소설 「날개」에 나타난 아내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 '자기 기만'이 그 게임의 규칙인바, 구보에 있어 그것이 거리감으로 나타났다면 이상에 있어 그것은 생리화로 드러났다. (중략) 전자가 문체의 환각(미학)이라면, 따라서 자각적이라면, 후자의 그것은 자조적이자 패러독스의 일종이었다.[50]

이상의 우월의식과 자조는 하나의 쌍이라고 할 수 있다. "剝製가 되어 버린 天才"는 이런 양가성을 모두 표현하는 말이다. 이러한 대칭성은 「12月 12日」의 '대칭점'의 창안과 동궤를 이룬다. 또한 시 「수염」의 다음과 같은 일절과도 상응한다. "疎한것은密한것의相對이며또한/ 平凡한것은非凡한것의相對이었다/ 나의神經은娼女보다도더욱貞淑한處女를願하고있었다."[51] '疎와 密', '平凡과 非凡', '娼女와 貞淑한處女'는 서로 '대칭점'

1995, 193쪽.

48) 앞의 책, 193쪽.

49) 이상, 「단발」,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246쪽.

50) 김윤식, 「<날개>의 생성 과정론」, 『이상문학전집 5』, 문학사상사, 2001, 357쪽.

51) 이상, 「수염」,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107쪽.

이지만, 그것은 결국 동일하다. 이상의 기만술의 요체는 이 대립하는 것들이 마치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기술하는 데 있다. 예컨대, "나의 神經은娼女보다도더욱貞淑한處女를願하고있었다."와 같은 발화 방식이 그것이다. 이 구절은 "娼女"와 "貞淑한處女"가 서로 반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娼女"가 "貞淑한處女"이기도 하다는 의미로 읽혀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만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기기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기기만은 「동해」에서 "돈 지갑을 어느 포켓에다 넣었는지 모르는 사람만이 容易하게 돈지갑을 잃어버릴 수 있듯이,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결코 新婦 姙이에 대하여 주의를 하지 않기로 주의한다."[52]에 암시된 자기 기만술과 상통한다. 이 구절은 주의하고 있음에도 주의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즉 의식적인 부주의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결국 그의 기만술은 이중적 기만, 곧 타자에 대한 기만술이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술로 귀착된다.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기만술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아내의 기만에 대한 부정의 행위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의 행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체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다. 돈의 반환은 아내의 불가해한 욕망을 실체화하는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娼女보다도더욱貞淑한處女를願하고" 있는 것이다.

5. 대칭의 반복과 시간의 기만술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아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로서의 '대칭성'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와 '아내'는 절름발이의 대칭성을 띤다. 그것은 좌우가 바뀐 '데칼코마니적 대칭' 관계이다. 둘째, '나'가 분열된 존재이듯, '아내' 역시 분열된 존재이다. 이는 '아내'가 안과 밖으로 이중화되었음을, 곧 창부와 아내로 이원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내의 대칭성 역시

52) 이상, 「동해」,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269쪽.

이중적이다. 셋째, ‘나’와의 관계에서의 아내의 기만술은 이러한 대칭 구조의 균열을 야기하고, 이에 대한 ‘나’의 기만술은 양자의 대칭 자체를 파열시킨다. 이때 ‘나’의 공포는 ‘아내’의 불가해한 욕망에서 비롯한다. ‘나’의 기만술을 아내의 욕망의 실체를 드러내려는 운동이다. 넷째, 여기에 타자를 자아화하려는 힘이 내재해 있다. 이 힘은 자아를 타자화하려는 힘과 대위적인 관계를 이룬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개의 힘은 ‘절망→기교’로의 운동과 ‘기교→절망’으로의 운동과 동궤를 이룬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부부 사이로 대변되는 주체와 타자의 기만술이 통시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시적 대칭 구조가 시간에 의한 통시적 대칭 구조로 확장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탐색이 그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이것은 ‘부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나’와 ‘아버지’의 관계로 드러나고, 최종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의 관계로 수렴된다. 그 첫 출발에 “娼婦가 分娩한 死兒의 皮膚全面에 文身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暗號를 解題하였다.”[53]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암시적이다. 이는 절름발이 부부의 관계가 다음 세대에 의해 연결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死兒’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54] 더욱 흥미로운 것은 “死兒의 皮膚全面에 文身이 들어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일종의 암호로서 출생의 비밀을 함축하고 있다. ‘死兒’의 암호를 해독하려는 시도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변형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울을 보며 “저사내는어데서왔느냐./ 저사내는어데서왔느냐”[55]는 질문, 곧 ‘나’의 존재의 기원에 대한 질문과 동궤를 이룬다. 따라서 부부의 자식이 ‘死兒’로 태어났다는 것과 ‘사내의 기원’에 대한 물음은 ‘대칭성’을 띠고 있다. 이것은 결국 ‘절망으로의 회귀 운동’이 지닌 자기 부정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56]

---

53) 이상, 「一九三一年(作品第一番)」,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238쪽.
54) 다음의 일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여자는마침내落胎한것이다. 크렁크속에는 千갈래萬갈래로찢어진POUDRE VERTUEUSE가複製된것과함께가득채워져있다. 死胎도있다.” 이상, 「광녀의 고백」, 위의 책, 136쪽.
55) 이상, 「얼굴」, 위의 책, 129쪽.
5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지면의 한계로, 추후의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이상, 이승훈 편, 『이상문학전집 1』, 문학사상사, 1989.
이상, 김윤식 편,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_____, 『이상문학전집 3』, 문학사상사, 1993.
_____, 『이상문학전집 4』, 문학사상사, 1995.
_____, 『이상문학전집 5』, 문학사상사, 2001.
이상, 김주현 주해, 『정본 이상문학 전집 1』, 소명출판, 2005.
_____, 『정본 이상문학 전집 2』, 소명출판, 2005.
_____, 『정본 이상문학 전집 3』, 소명출판, 2005.

2. 2차 자료

권영민 편저,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7.
김인환 외,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 수류산방, 2013.
박현수, 「이상 시의 수사학적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2.
신형철,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2호, 한국현대문학회, 2002.
오형엽, 「이상 시의 구조화 원리 고찰」, 『한국언어문화』 45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8.
이승훈, 『이상시연구』, 고려원, 1987.
장철환, 「이상 글쓰기의 방법적 원리로서 '대칭성' 연구 1」, 『한국학연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11.
황현산, 「'오감도' 평범하게 읽기」, 『창비』 101호, 창작과비평, 1998. 가을.
브루스 핑크, 『라깡과 정신의학』, 민음사,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Symmetry as the Principle of a Writing in Lee Sang's poetry 2

-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subject and the other

Jang Cheul-Whoan
(Yonsei University)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on the symmetry as the principle of a writing in Lee Sang's poetry,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subject and the other. The word 'cripple' is a crux to understand the symmetry as the principle of a writing in Lee Sang's poetry. We can see the becoming ego of other in it. The door is an axis of symmetry of this symmetry.

The technic of deception is a important method to investigate a delicat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A wife divided into two, i.e. a chaste woman and a prostitute. These two parts are composed of a decal symmetry, which keeps their relationship. The poetic subjects deception to a wife's deception implodes this symmetry. Finally this self-deception is similar to his self-denial. Therefore his statement("espair engenders artistic technic and technic produces despair again.) shows up his principle and methodology in the his writing.

Key words: symmetry, subject, other, husband and wife, cripple, door, deception, despair, technic.

논문접수일 : 11.**15** / 심사기간 : 11.**16 - 12.5** / 게재확정일 : 12.**10**